Environmental

2024 ESG Trend 10

Social

제공일시 2024 01 12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Governance

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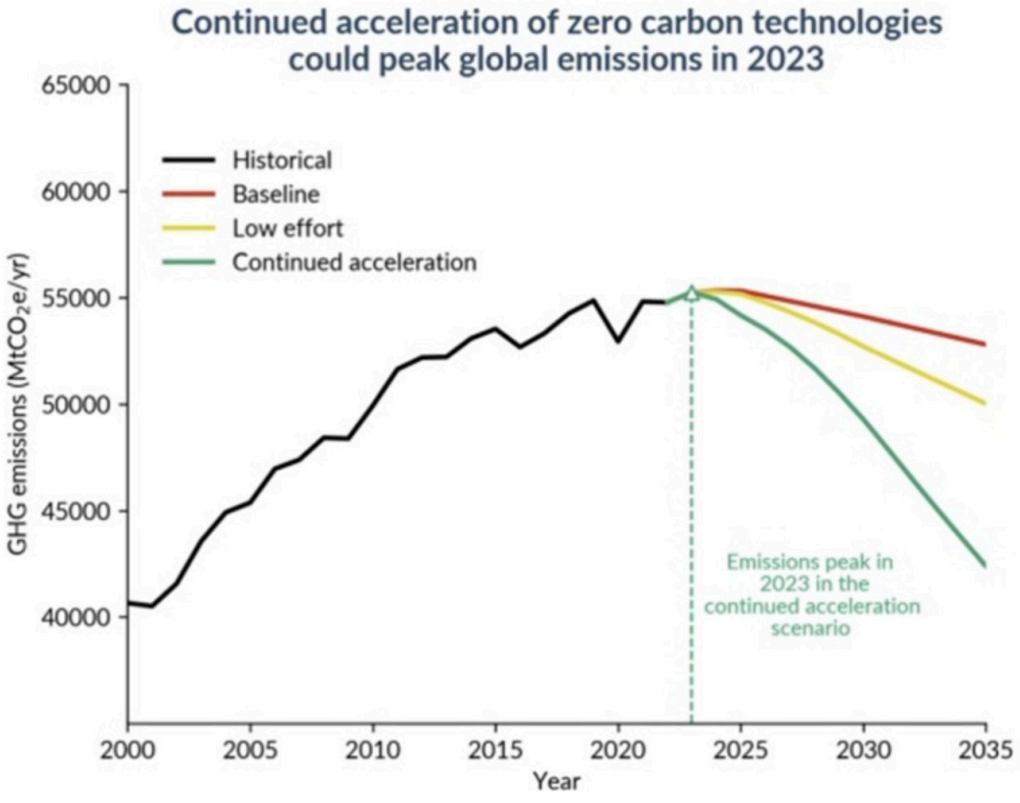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3. 탄소중립 선언 그 이후

**“COP28의 탈화석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3배 달성 약속 시작해야…
2024년 12월까지 NDC 투명성 보고서 제출해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140여개 이상의 국가가 넷제로 선언을 했다. 문제는 탄소중립 선언 그 이후다. 독일의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탄소배출량은 2023년 정점을 이루고 2024년부터 줄어들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다만, 배출량이 얼마나 빠르게 감축될지는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분석했다. 즉, 탄소중립 정책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탈탄소화 속도를 계속 높여갈 때 2023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시나리오는 녹색(Continued acceleration)으로 표기됐다. (https://climateanalytics.org/publications/when-will-global-greenhouse-gas-emissions-peak)

COP 28, 그 이후…화석연료 보조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탄소중립 정책의 화두는 2023년 11월 30일 개최됐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던져졌다. 세계 각국과 산업계는 총회에서 논의됐던 의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COP28의 주요 정책 의제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화석연료 전환 합의 ▲손실 및 피해 기금의 운영 ▲기후 재원 목표 수립 노력 ▲파리협정 제6조 ▲투명성 보고서 작성이 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다시 세우도록 요구받았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온도 제한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에 43%, 2035년에 60%를 감축해야 한다. 배출 정점은 2025년에 도달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아닌 '탈화석연료 전환(transition away)'을 선택했다. '전환'은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약속으로 '퇴출'보다는 완화된 표현이다. 이 선택이 이뤄진 데에는 산유국의 반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 모니터링 기관인 넷제로 트래커(Net-Zero Tracker)가 COP28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유국의 약 94%가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 전체 당사국의 13%만 화석 연료의 완전한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한국을 비롯한 123개국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서약'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개선하는 데는 합의했다. 직접적인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은 어렵지만,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지점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화석연료 폐지를 약속한 당사국들은 대부분 EU회원국과 도서국이다. 이들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려면 보조금 지원을 먼저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핀란드, 앤티가 바부다,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등 12개 국가는 2023년 12월 9일(현지 시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 연합을 출범시켰다.

IMF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확대함에 따라, 2023년 전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이 1조3000억달러(약 171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보조금 리스트 공개(화석연료 소비를 자극하는 인센티브 등 간접 보조금 포함) ▲국제항공, 해상운송부문 등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국제협약 파악 ▲공동 행동을 위한 정기적인 대화 창구 마련 등이 명시됐다. 화석연료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시켜 주는 요소들을 국제 협력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안에 동의했지만, 보조금 폐지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연내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EU 타임라인과 검증 과정 참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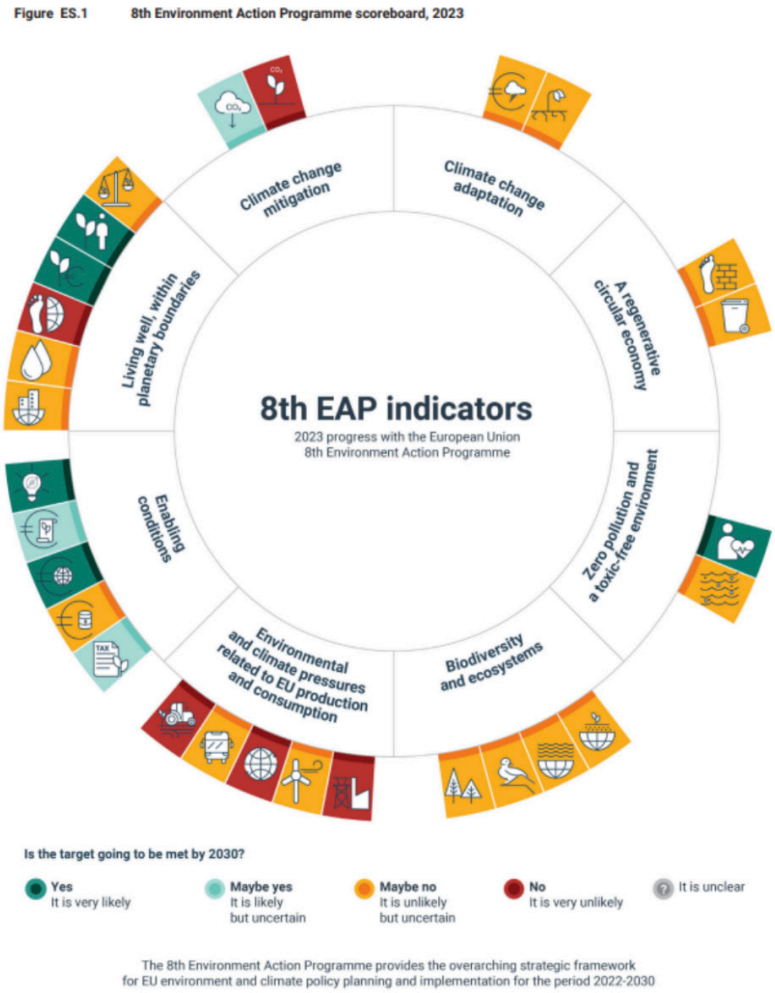
COP28 합의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격년마다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달성 경과 등의 정보가 담겨야 한다.

2024년 12월까지 대부분의 당사국이 첫 번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23년 12월 19일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격년 투명성보고서와 2035년 NDC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아직 보고서와 NDC 제출에 대한 타임라인이 확정되어 공표된 바가 없으므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유럽의 시간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월 6일(현지 시각) 2040년 기후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기후법은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205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올해 안에 2040년 감축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기후목표 부문은 에너지 소비, 순환경제, 친환경 농업이다/EEA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4년 6월까지 기후행동 계획 최종안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중 기제출된 21개의 국가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집행위는 각국의 목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권고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행위는 프랑스가 제출한 국가 에너지와 기후 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NECP) 초안은 2005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46.4%만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EU의 규정에 명시된 47.5%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넷제로 목표도 모니터링 대상…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약속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실제 행동과 목표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넷제로 트래커(Net-Zero Track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탄소중립 목표를 세운 기업은 1000곳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탄소중립 서약이 증가하는 만큼, 그들의 실질적인 노력과 목표의 질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넷제로 트래커는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유엔의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이니셔티브의 권고안을 따르는 기업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레이스 투 제로는 2022년 6월,강화된 기업탄소중립 기준(Starting Line Criteria)을 제시했다. 해당 기준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감축 50% 중간목표 수립 ▲ 2050탄소중립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환 계획 제시 ▲Scope 1-3 배출 모두 포함 ▲탄소 상쇄 사용 시 방법론 명시를 요구한다.

기업들은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활용하여 넷제로 목표의 신뢰성을 보장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CEO기후리더연합, 보스턴컨설팅그룹(BCG)가 2024년 1월 8일 발표한 '기후행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부터 2023

년 8월까지 SBTi로 세운 넷제로 목표의 달성을 약속한 기업의 수는 6배 이상 늘었다. 현재 과학기반 목표를 보유한 기업은 4264곳이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 1000대 기업 중 이러한 유형의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20% 미만이며, 거의 40%는 탄소중립 약속이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기업이 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다.

2024년 기후선거에 주목…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제동 걸릴 수도

2024년은 전 세계 인구의 40%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지구 선거의 해'다. 한국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기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선거는 미국 대선과 유럽의회 선거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5일에 열린다.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자격을 갖추고 당선될 수 있는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부문 최대 업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 페이지(https://www.facebook.com/DonaldTrump/?checkpoint_src=any)

이번 대선 결과로 이목이 쏠릴 기후법안은 「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 및 관련 기관 세출법」이다. 미국 하원 의회는 해당 법안을 2023년 10월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줄이는 대표적인 기후예산삭감법이다. 삭감 대상은 2022년 민주당이 주도로 승인한 기후와 의료 관련 법안으로 50억달러(약 6조754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작년보다 약 8% 더 높은 예산을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부 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Office) 예산을 작년 대비 약 4억6600만달러(약 6295억), 즉 13% 삭감 조치했다. 공화당은 해당 연구소 예산을 향후 약 10억달러(약 1조3509억원), 작년 대비 42% 수준까지 추가로 삭감할 것을 검토 중이다.
올해 6월에 열릴 유럽의회 선거도 EU의 탄소 중립 정책의 티핑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선거는 유럽연합의 행정부 수장인 EU집행위원장 인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유럽연합의 정책을 책임지는 리더들을 선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럽의회의 각 정당은 집행위원장 후보를 미리 선정한다.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당이 정한 후보가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우선 검토되므로, EU 기후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준다.
관전 포인트는 먼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재선에 도전할지 여부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유럽의 환경 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기 사임할 경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의장 대행을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헝가리의 순회의장국 권한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친러시아 성향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안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헝가리는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이 무기한 연기한 'EU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향후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빅토르 오르반 총리 소셜 네트워크

네덜란드 정부-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국제 연합 출범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3/12/09/cop28-netherlands-launches-international-coalition-to-phase-out-fossil-fuel-subsidies
IMF-전세계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https://www.imf.org/en/Topics/climate-change/energy-subsidies#Energy%20Subsidies
유럽환경청(EEA)-유럽연합, 2030년 환경목표 달성 어려워
https://www.eea.europa.eu/en/newsroom/news/meeting-eu-environment-policy-targets-by-2030-will-be-challenging
유랙티브-유럽집행위, 2040년 기후 목표 제안 예정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2024-lookahead-climate-target-for-2040-will-be-eu-commissions-legacy-activists-say/
엔지니어링뉴스-2050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후조치 부족
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global-climate-action-insufficient-to-meet-2050-goal-of-15-c-limit-report-2024-01-08
국제에너지기구(IEA)-석유화학기업의 넷제로전환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7a4b0c4e-d78c-4a8e-998c-6cde10a4e49b/TheOilandGasIndustryinNetZeroTransitions.pdf
넷제로트래커-화석연료단계적 퇴출 현황
https://zerotracker.net/insights/global-net-zero-targets-at-risk-due-to-scarcity-of-fossil-fuel-phase-out-plans
https://zerotracker.net/
블룸버그-글로벌 석유가스 기업 50곳, COP28서 2050탄소중립선언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2-02/cop28-exxon-aramco-occidental-and-more-pledge-methane-cuts
CBS뉴스-트럼프의 대선후보 자격에 대한 CBS 설문조사
https://www.cbsnews.com/news/trump-immunity-jan-6-opinion-poll-2024-01-08/
블룸버그-기후 예산 삭감 법안 통과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26/speaker-mike-johnson-s-first-big-bill-cuts-biden-climate-change-funding
가디언-샤를 미셸 EU의회선거 출마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jan/07/michel-sparks-race-to-stop-orban-becoming-european-council-president